



'징계 풀린' 이천수 전남 희망 되나

전남, 3경기 연속 무승 정규리그 최하위 수도 이번주 인천·수원과 격돌...분위기 반전 기대

'돌아온 이천수, 전남의 희망이 될까?' 경기중 부적절한 행동으로 출장금지 징계를 받았던 '풍운아' 이천수가 그라운드에서 복귀한다.

올 시즌 전남 드래곤즈에 동지를 둔 이천수는 지난달 7일 FC서울과의 2009 K-리그 개막전에서 오프사이드 관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향해 부적절한 동작을 했다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6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단 돌출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국내 프로축구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페어플레이의 기수로 나서는 사회봉사활동 명령도 함께 받았다.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천수는 지난 18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 상무와의 정규리그 6라운드 경기에서 페어플레이 기수로써의 임무를 완수하면서 징계에서 풀렸다. '자유의 몸'이 된 이천수가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은 22일 오후 7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리그컵대회 조별리그를 앞두고 있고, 26

일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과의 K-리그 7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천수와 전남 모두에게 이번 주는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서 수원으로 1년간 임대됐던 이천수는 코치진과의 마찰 속에 임대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임의탈퇴 당했다. 우려곡절 끝에 박항서 감독의 부름을 받고 전남 선수로 재탄생했지만 데뷔 첫 날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훈련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첫 출전에서 가벼운 몸놀림으로 팀의 첫 골을 장식했던 만큼 전남의 아쉬움은 더 컸다.

현재 리그컵에서 1승1패로 A조 3위를 달리고 있는 전남은 정규리그를 포함해 세 경기에서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 정규리그 성적은 승 없이 4무1패로 최하위로 떨어졌다.

지난 18일 상무와의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거센 공격을 펼치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했지만 끝 결절력 부족으로 1-1로 승부를 가리



이천수가 경기 중 볼을 차고 있다. /김영욱기자 wool@kwangju.co.kr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내년 대한해협 재도전"

최근 새 인연을 찾은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57) 씨가 내년 여름에는 대한해협 횡단이라는 '위대한 도전'에 다시 나선다.

조 씨는 21일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개인적으로 대한해협 횡단 30주년이 되는 내년 8월15일경에 다시 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제주에서 훈련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조 씨는 이미 지난 1980년 대한해협 횡단에 성공했다. 당시 조 씨는 부산 다대포에서 출발해 일본 쓰시마섬(대마도)까지 약 55km 거리를 13시간16분 만에 헤엄쳐 건넜다.

내년에는 거제도 장승포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목표 기록은 16~18시간이다. 이번 도전은 최근 새 식구가 된 이성란(44) 씨도 돕는다.

2001년 전처와 사별하고 고향 땅인 전남 해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조 씨는 지난 18일 해남의 한 교회에서 이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연합뉴스



'땅끝 해남' 배구열기 강타

2009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 춘계대회가 24일부터 '땅끝' 해남 우של체육관에서 열린다.

프로배구 V-리그 우승팀 삼성화재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대학 1부 8개팀과 2부 4개팀, 여대부 4개팀 등 총 16개팀이 출전해 오는 29일까지 전국 최강을 향해 열전을 펼친다.

올 시즌 대학배구 판도는 춘추전국. 작년 4차례 대회에서 인하대와 경기대가 2번씩 우승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인하대,

경기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빅4'의 전력이 엇비슷해 쟁쟁을 열어보기 전에는 예측이 힘들다는 게 대학배구 감독들의 전망이다.

서브와 블로킹이 강한 한양대는 국가대표인 예시 박준범이 버티고 있는데다 2m 장신 공격수 안요한이 합류해 화력을 더했다.

성균관대는 전력이 그대로 남아있고, 인하대는 전통적으로 기반기와 조직력이 탄탄하다. 경기대는 문성민 등 4명이 빠

24일 춘계 대학배구대회 개막 인하대 등 남·여 16개팀 열전

졌지만 강영준, 최홍석이 대표급 자원이었다. 여기에 장신(2m) 청소년대표 이강원을 신인생으로 받은 경기대를 비롯해 흥익대, 명지대도 다크호스로 등장할 기세이다.

대학 1부는 한양대, 흥익대, 성균관대, 인하대와 경기대, 경희대, 명지대, 조선대가 두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28,29일 크로스 토너먼트로 준결승과 결승을 벌인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전남도생체험, 서울 생체험 방문 '우호교류행사'

F1·여수박람회 홍보도

전남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이탁우)는 오는 25일부터 3일간 서울생활체육 방문 우호교류행사를 갖는다.

지난 2005년부터 교류해온 도생체험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서울 생활체육 운영프로그램 등을 체험하고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한다.

또한 검도·당구·배구·테니스 등 4개 종목 연합회 동호인 65명도 참가해 서울시 동호회

원과 친선 경기도 가질 예정이다. 도생체험은 이번 방문기간 중 북동쪽합동운동장서 열리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식에 참가해 '2010~2016 F1 코리아그랑프리'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 전남이 추진하는 대형사업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생체험은 오는 10월 해남서 열리는 전남도민생활체육대회에 서울생체험 동호인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있는 힘을 다해 21일 전북 순창군 실내체육관에서 개막한 제57회 전국춘계남 지역대회 남고부 56kg이하 용상에서 황호진(완도수산고)이 115kg의 바벨을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임희남 '총알 탄 사나이'

전국실업육상 100m 위

한국 육상의 기대주는 역시 임희남(광주시청·사진)이었다.

임희남은 21일 경북 안동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금메달을 차지했다.

임희남은 이날 일반부 100m 결승에서 10초54를 기록, 2위 이준화(서천군청·10초67)·3위 김진국(수원시청·10초72)을 제치고 1위로 골인해 '국내 100m 최강'임을 입증했다.

이날 우승으로 임희남은 그 여세를 몰아 오는 8월 베를린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 좋은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다.

육상국가대표인 임희남은 지난 2·3월

자메이카 전지훈련 때 참가했던 현지 육상대회 100m에서 최고 기록인 10초36의 기록을 세웠지만 초속 2.4m의 바람 때문에 공식 기록(초속 2m 미만일 경우에만 인정)으로 인정 받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최명준(광주시청)은 일반부 400m 결승에서 1위 조성권(서천군청·48초24)에 이어 48초41을 기록하며 2위로 골인,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한국법률경매(주)

062) 225-1688 H.010-3565-2888

※ 위치: 자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 무료주차시설 완비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평가	최저가
서울	유은동 배골로2차	34	17/15	1억4500만	1억
	용마동 대우파크빌2차	46	18/9	1억8000만	1억2800만
	파랑동 삼익대신	42	12/8	1억2000만	8400만
	마포동 화랑기	32	15/8	1억9000만	1억3300만
	강명동 하이츠	32	25/4	8800만	6100만
	화성동 삼익	42	12/8	1억4000만	7800만
	정릉동 삼우행복차	34	15/12	1억7000만	1억1900만
	차명동 중흥1단지	38	17/15	1억9000만	1억3300만
	금호동 남양파크	42	19/4	1억8000만	1억2800만
	쌍문동 부전빌딩	32	19/17	1억3500만	9400만
	금호동 리안아파트	37	17/9	1억2000만	8400만
	금호동 금호에스빌	38	18/18	1억9000만	1억3300만
부산	중랑동 김호태타운	39	20/20	1억8000만	1억1200만
	금호동 호반리전빌	33	20/7	1억4000만	9800만
	금호동 도시공원2단지	24	15/13	8200만	6560만
	진일동 삼익세라미3차	32	20/6	1억2000만	8400만
	주월동 산천2단지	32	15/8	8000만	5600만
	주월동 평지	44	20/13	1억9000만	9100만
	주월동 대왕아파트	48	12/2	1억2500만	8750만
	주월동 평지아파트	44	20/13	1억3000만	9100만
	주월동 김호태타운	32	20/9	1억3000만	9100만
	주월동 일우에스1차	38	15/6	1억4500만	1억8500만
	주월동 교촌하이원리츠	32	12/1	1억4000만	9800만
	간곡동 김호태타운	31	14/4	9000만	6300만
대구	분흥동 현대1차	48	18/6	2억	1억4000만
	일곡동 현대2	24	19/15	7800만	5300만
	매곡동 서광인텔파크	37	22/1	1억2000만	8400만
	우산동 현대아파트	55	15/8	1억8000만	1억1200만
	동일동 푸른마을1단지	32	20/11	1억2000만	8400만
	영남대	32	20/11	1억2000만	8400만

광고접수안내

062) 227-9600 FAX: 062) 227-9500

회춘의 "꿈" 파워마카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개발한 '큰놈' 개발한

저렴한 가격 99,000원

1개월분 90,000원 / 2개월분 150,000원

174/424 5층 14억7000만
140/538 5층 12억9000만
1092/898 6층 17억4000만
120/403 6층 13억
110/259 5층 8억2000만